

◎ 2003년 교회표어 ◎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함즐함울

(준비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51호 / 발행일 : 2003년 8월 24일



교회학교별 여름수련회 교구별 여름수련회 은혜중에 마쳐

지난 7월 12일 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필두로 시작된 교회학교 여름수련회가 8월 1일 고등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마쳤으며, 교구 수련회는 7월 17일 3교구로부터 시작하여 8월 19일 1교구를 끝으로 진행되었다. 각 부서별, 교구별로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구 식구들이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다(사진은 유년부 여름수련회).

봄베이의 이영란 전도사로부터 온 편지

주님의교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가족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 곳 인도 봄베이(뭄바이)로 오게 되어서 송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신년예배를 시작으로 주님의교회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참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을 하며 여러 부서에서 봉사도 하고 매 주일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학을 하게 되고 주님의교회에서의 준 교역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질 때마다 반드시 신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으로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영아부에서 교역자로 4년, 교육전도사로 5년 차 봉사해 왔습니다. 그 곳에서 만난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가능성 있는 미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사람과 오랜 기간 함께 교사로 섬겨주신 선생님들께 이 지

면을 통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처음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 속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 다. 장년 사역의 경험이 전무한 나에 게 한인교회 목회 전담으로 만 2년동 안 가겠느냐는 말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시간이 주어 졌을 때 제게 생각난 단어는 '순종' 이 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생각, 순종함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뿐이었 습니다. 제가 간다고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인교회의 결정이 남아있기에 부담스럽지만 이력서를 보 냈습니다. 간간히 소식이 오기는 여교 역자라는 점이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며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7월 7일 아침, 최종 소식을 접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가야 하는구나!' 그동안 결정을 기다 리면서 다른 사람이 결정되었으니 오 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러나 제 의지와는 다르게 순식간에 누 군가의 힘에 의해 달려가는 듯한 느낌 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제가 사는 곳은 아파 트인데 한국 사람은 저 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하여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 다. 지난 주일(10일)에 첫 설교를 했습 니다. 깊은 인상을 주려고 그랬는지 인 도 현지 교회 사찰이 엠프를 가지고 도 망가는 바람에 마이크도 없이 첫 설교

를 고향치며 했습니다. 이 곳 건물들은 방음이 안되어 밖의 소음이 그대로 들 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도 말소리가 분산되어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데 그 날의 일은 악몽 같습니다. 한인교회가 현지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는 데 제가 사역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 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열흘동안 빈민들이 살아가는 슬럼가 도 방문해보고, 전임 사역자가 해 오던 학교 짓는 곳에도 가보고, 한인교회가 지원해서 지었다는 현지 교회들도 방문 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심을 눈으 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현지인 사역에 앞서 한 인교회에서의 사역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투성이인 저를 기억해 주신 주님이 감사할 뿐입니다.

떠나기 전 공항까지 배웅나와주신 권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감사합니 다. 노봉옥 권사님의 도움이 아니었으 면 공항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 다. 그동안 주님의교회를 통해 큰 은혜 를 입었습니다. 일일이 감사드리지 못 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그 은혜를 베풀어 가겠 습니다. 앞으로 전임 사역자가 돌아올 만 2년간의 사역이 될지 더 긴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불순종하 지 않고 순종하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얼마 나 절실한지 이 곳에서 빠져리게 느끼 고 있습니다.

강건하시길 기원드리며
인도 봄베이에서 이영란 올림

교회소식

▶ 2003년도 임직자 피택자 교육

2003년 9월 7일, 오후 1시에 5층 찬양연 습실에서 있으며 해당자는 장로 피택자 10명, 안수집사 피택자 14명, 권사 피택 자 12명이다.

▶ 유소년 축구클럽

주님의교회 교육부에서는 초등, 중등 학생 들이 재미있게 축구를 즐길 수 있게 함은 물론 복음전파를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 하기 위해 유소년 축구클럽을 준비하였 다. 바른 신앙과 전문적인 실력으로 성실 히 가르쳐주실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즐 겁고 유익한 시간이 기대된다.

◎모집대상: 남녀 초등학생, 중학생

◎첫 모 임: 9월 7일(주일) 오후 1시, 소예 배실(부모님과 함께 하는 감사예배 및 발단식)

◎연습일정: 9월 7일~11월 31일

(매 주일 총 12주, 우천시 실내교육)

• 오전 11:00~12:30(중등부)

• 오후 1:30~3:00(초등부)

◎회 비: 5만원

◎준 비 물: 체육복, 축구화(개별구입)

◎신청방법

① 8월 24일까지 각 부서에서 클럽 당 24 명(유년, 초등, 소년, 중등부)~48명(초과 시 최대)까지 선착순으로 약식 접수를 받는다.

② 배부 받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회비와 함께 제출하면 최종 등록된다.

※ 클럽당 48명으로 증원시 일정이 다소 변 경될 수 있다.

◎강사진

• 이용수(2002 한일 월드컵 기술위원장, 주님의교회 성도)

• 조남은(브라질 축구 아카데미 대표, FIFA AGENT, 주님의교회 성도)

• 신재홍(주택은행, 안양LG 코치 역임, 주님의교회 성도)

• 외 세종대학교 체육과 학생들

- 주님의교회 교육위원회-

▶ 교회외부행사 안내

① 앤그래함 러트 여사 초청

기독교여성부흥성회 '변화되게 하소서'

• 일시: 9월 5일(금) 오후 7:00~9:30
9월 6일(토)

오전 10:00~오후 5:30

• 장소: 잠실 올림픽 실내체육관

• 문의: 02-571-1184

② 뮤지컬 'King'

• 일시: 8월 23일(토)~9월 4일(목)
오후 4:00, 7:30

•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예매: 1588-7890

• 문의: 02-706-7325

4교구 여름수련회

기도와 휴식의 시간

4교구 여름수련회가 7월 25일(금) 저녁부터 26일(토)까지 서울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인 경기도 '축령골타운'에서 있었다. 4교구 가족들은 축령골타운에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 후 야외에서 모닥불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는 각자 소개와 찬양, 그리고 '이 사람은 찾아라' 등 즐거운 게임을 통해서 사귀며 하나가 되는 어울림의 시간이 되었다.

이후 장소를 숙소로 옮겨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4교구 김원재 목사는 누가복음 12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뜨겁게 선포했으며, 그리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밤 12시까지 이어졌다. 이후 군고구마, 감자 등 맛있는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밤 늦도록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5교구 여름수련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다변하는 현대사회의 생존논리를 따질 것도 없이 우리네 세상살이에서 여럿이 모여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그것이 설령 이웃사랑과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교회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각종 행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잔칫집에 객이 없을까봐 겁부터 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어려운 일을 '5교구 여름수련회'라는 이름으로 7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무사히 치를 수 있음은, 교구 윤덕영 목사와 준비위원들의 수고와 그 수고를 가능하게 하신 주님의 은총이었다.

교회 예산을 절약하느라 그 흔한 전세버스도 빌리지 않았었고 적지 않은 회비를 거두었는데도 80여명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모였다. 다들 직장가 가정에서 잠시 비워둘 공간을 메꾸느라 분주했을 터이고, 1박 2일의 일정이 버거운 분들은 당일치기 코스를 감수하셨다.

25일 새벽, 천둥과 번개가 동반된 억수로 쏟아지는 빗소리에 잠이 깨어 어련히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는 '우(愚)'를 범하였다. 어느덧 말갈개 개인 이른 아

이튿 날 아침 축령골타운의 고요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았다. 성도들은 계곡과 정원을 거닐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경배를 드렸다. 아침 7시에 온 교구 식구들이 모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아침식사 후 휴향림으로 등산하였는데 축령산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깨끗한 공기 속에 잣나무로 우거진 숲을 거닐면서 성도간에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의 품에 안겨 안식하며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말끔히 씻을 수 있었다.

다시 축령골타운으로 돌아와 계곡에 흐르는 맑고 얼음 같이 차가운 물에서 더위를 식히며 물놀이도 하였다. 계곡 옆 운치 있는 정자에서 맛있는 점심식사 후 집으로 출발하였는데 같이 갔던 아이들은 아예 여기에서 살자고 부모님을 졸랐다는 말도 있다.

침 교회에 모여 25대의 자동차 행렬로 첫 번째 목적지인 광림수목원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한 여름 국립수목원을 둘러보기 가장 알맞게 간밤에 비를 퍼부어 주신 창조주를 마음껏 찬양하고, 위대한 자연을 인간에게 허락하심이 감사해서 또 찬양했다.

이어진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의 공동체훈련은 인도하는 최현배 집사의 통솔력과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적극성이 환상의 조화를 이루어 한바탕 웃고 뛰는 놀이마당이었다. 저녁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며 그 나라와 의를 이 세상 것보다 먼저 구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수련회 일정은 이렇게 흘러갔지만 끝날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임하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이에 더하여 우리 모두 믿음의 공동체 '한식구'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악착같이(?) 회비를 건으신 부정회 회계집사와 수련회 소책자를 너무 정성스럽게 만드신 최병욱 집사, 경건의 시간을 위해 금식기도로 준비하신 김동근 집사, 사진을 담당하신 몇쟁이 임근원 집사, 간식을 마련해주신 분들과 여러 운영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윤복신 집사(5-8구역)

7교구 여름수련회

세상의 누룩으로!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했던 2003년 7교구 수련회는 '세상의 누룩으로'라는 주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8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강원도 둔내 소재 유스호스텔에서 많은 교구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었다. 모든 진행 과정에 함께 하시고 모두가 안전하게 수련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잘 모르던 교구 식구들의 얼굴들을 알게 되고 구역 식구들간의 친교 그리고 마음의 벽을 허무는 나눔의 시간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첫 날 저녁 찬양예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주님의 교회가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하는 집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서로의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

하던 시간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우리의 영적 갈증을 회복시켜주신 시간으로 기억된다.

찬양집회를 끝내고 밤 10시부터 시작된 캠프파이어는 서늘한 밤공기를 덥혀주며 해바라기 멤버였던 조성곤 집사 부부의 찬양과 율동 인도로 깊어가는 밤의 운치를 더하여 준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첫 날 마지막 순서로 준비한 바베큐 파티 또한 모두가 음식을 들며 즐거움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었다. 자연의 숲에 둘러싸인 통나무집에 구역별 숙소를 정하고 소속 식구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 것 또한 기억에 남을 추억이 아닌가 싶다.

이튿 날 새벽에는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를 따라 청태산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며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산책의 시간을 가졌고, 아침식사 후의 구역별 QT 모임은 '신앙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각자 의견을 나누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점심식사 후에는 달는 예배와 조별 단위의 게임 시상식 그리고 교구 가족들의 사진촬영으로 수련회를 마감하였다.

금번 수련회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와 같이 세상의 누룩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는 교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 고한규 집사(7-1구역)

8교구 여름수련회

몸도 마음도 풍성히



8교구는 100여명의 가족들(어른 82명, 아이들 20명)이 양평관광농원에서 모여 7월 27일, 28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교구 수련회를 가졌다. 올해는 전교인 대상의 수련회가 아니고 교구별로 모였기 때문에 기대와 호기심으로 11개의 구역 가족들이 서로 음료, 과일, 떡, 고기, 야채를 나누어 준비하는 모습들이 감사함으로 남았다.

오락가락하는 비를 맞으며 농원의 아담한 정원과 실내에서 세 시간 동안의 게임을 즐겼다. 특별히 5교구에서 초빙해 온 최현배 집사가 게임 인도자로 수고를 해주었다. 웃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른 구역의 성도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다이어트의 걱정을 잠시 잊은 채 양껏 먹고 나자 식곤증이 오기에 딱 좋은 여건이 되었지만 김병모 목사의 설교 말씀은 졸음이 사라지게 하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였다.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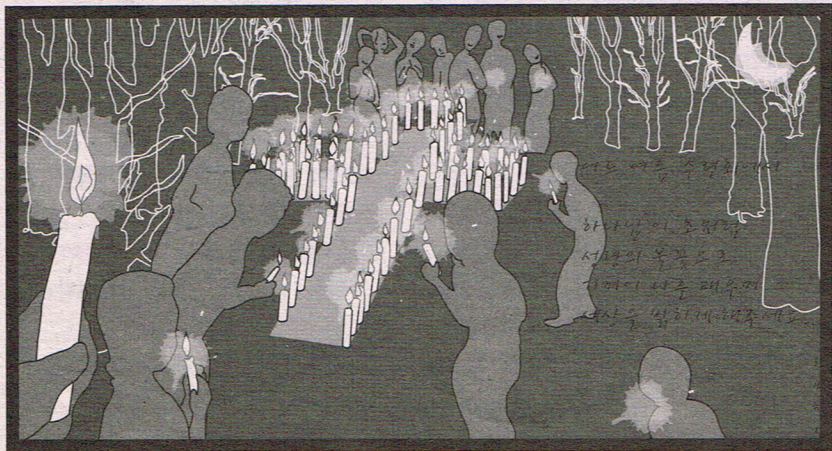
내부에 있는 십자가 모양의 반짝이는 촛불을 가운데로 두고 앉았다. 찬양 후 김영만 성도의 순수한 간증과 입교식, 최영 집사의 진지한 간증은 성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가져다주었다.

교회와 가정, 나 자신의 경건훈련, 성령의 충만과 은사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몇몇 집사들을 위하여 각 구역 사역자들과 목사가 직접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였고 모든 성도가 중보기도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은 결연한 태도로 주 앞에 서기를 서약하고 아쉬운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쳤다.

밤 깊은 시간, 별은 없었지만 비가 그친 덕택에 캠프파이어를 하며 수박과 감자, 고구마를 맛있게 먹고 사진도 찍었다. 어느 성도의 말이 생각난다. "주님의교회에 와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것이 처음이다. 배우자, 가정, 자녀, 모두 주님께서 주셨고 또한 주님의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할렐루야!"

수련회를 짧게 표현한다면 한 마디로 몸도 마음도 풍성해지고, 은혜 많이 받고,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헌신을 다짐한 시간이었다고 하겠다. 어느덧 돌아가는 성도들의 풍성해진 마음에는 찬송이 흘러나왔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 돌아 서지 않겠네'

/ 권주리 집사(8-1구역)



유년부 수련회

한여름의 천국파티

유년부 여름수련회가 '예수님의 매력적인 제자들'이라는 주제로 60여명의 아이들과 20여명의 교사 및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27일(주)부터 29일(화)까지 안성 엄마목장(일명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열렸다.

출발 때부터 비가 간간히 내리기는 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주변 곳곳 전시된 예술작품들, 그리고 맛난 식사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수련회에 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었다. 수련회는 아침체조를 시작으로 오전과 오후에 각종 게임과 네이트로바 찾기 등의 자연체험, 수영장에서의 물놀이 등 놀이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저녁에는 찬양과 말씀, 인형극, 주제공과학습 등의 예배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아이들과 교사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깨달은 바 마지막 날 밤에는 예수님의 매력적인 제자가 되기 위해 '양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먼저 '섬기며' 살겠노라고 촛불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파티(가면무도회)가 열렸는데, 특히 선생님들께서 손수 예쁘게 차린 식탁 음식을 서로에게 먹여 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천국에서 식사하는 모습 그 자체였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친구들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있고 우아하게~ 작은 걸음 땔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엄마목장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맑고 푸른 찬양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배실이나 가정에서 그리고 마음 속에 살아 있는 듯 하다.

소년부 여름수련회

아싸 멋진 세상 만들어



7월 24일, 가평 용두암수련원으로 출발, 날씨는 화창하다 못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듯하다. 수련회 주제 '난 달라! 아싸 멋진 세상 만들어요'에 걸맞는 프로그램 준비와 기도로 이미 소년부 수련회는 시작되어 있었다.

먼저 장신대에 둘러 주기철, 환경직목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기념비와 기념예배당, 그리고 기도탑에 올라가 기도했다. 그 후 본 수련회 장소인 가평땅 명지산 자락으로 향했다. 수련원은 넓고 정돈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먼저 도착한 선발대의 찬양과 Worship Dance로 수련회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첫 번째 성경공부로 들어갔다. 공부의 내용은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양보'하는 삶을 살자는 내용인데, 저녁을 먹고나니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수련원측의 약속위반으로 일부 야외에서 진행해야 할 프로그램이 진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것이다. 사태 수습은 우리의 '양보'였다.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에 차질이 생길까봐 우리들은

더욱 뜨겁게 기도하였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었다.

둘째날이 시작되었다. 순서 사이마다 소년부에는 좀 취약했던 찬양과 율동을 담당하기 위해 초청된 장신대 워십댄스팀의 열정으로 분위기는 고조되고, 아이들의 참여도와 집중력이 더해졌다. 몸을 부대끼는 어우러짐의 마당과 물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의미를 심어주기도 했다.

저녁식사 후 수련회 하이라이트인 '화려한 외출'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덟 코스를 돌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동안 고통도 느끼고, 숙연해지기도 하고, 사랑을 맛보며 모든 코스를 돌고나서 강당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아이들을 겨안고 기도할 때 모두의 마음은 평안해져 갔다. 그 후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와 폭죽, 포크댄스를 하며 수련회는 서서히 종반으로 치달았다.

수련회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소감을 물었을 때 적지 않은 아이들이 예전에는 흥미도 없고 힘들어하는 반응을 보이던 '찬양과 기도' 시간이 좋았다는 이번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수련회는 날씨, 장소, 식사, 위생, 안전, 프로그램, 취약한 부분의 보강을 위한 젊은 청년들의 협력과 어르신들의 농익은 경험에서 나오는 침착과 안돈,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혼신을 다한 준비 등 여러 가지가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룸으로 좋은 열매가 맺어진 수련회였다.

/ 이희순 교사

초등부 여름수련회

울다가 웃은 전도사님



초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24일부터 2박 3일간 양평관광농원에서 있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학생들 82명과 농어촌 교회의 학생들 26명이 함께 하는 수련회였다.

농어촌교회 학생들은 중학생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양했지만 우리 학생들과 잘 어울려 함께 조를 이루었고 예상보다 쉽게 빨리 친해져서 마치 한 교회 학생들처럼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둘째날 저녁식사 후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교회에서 온 한 학생의 비싼 게임기가 없어진 것이다. 그 학생은 중국에서 살다가 최근 아버지가 돌

아가시어 잠깐 서울에 들렀는데 주위의 권유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였다. 황전도사는 모든 일정을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성경말씀과 찬양,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괴로움과 안타까움에 황전도사는 기어코 눈물을 보였고 모두들 숙연해졌다.

황전도사와 교사들은 아이들을 하나씩 겨안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황전도사의 이 시간 이후에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눈에 띄는 곳에 내놓으라는 말씀으로 예배는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날 밤 내내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수련회 기간 동안 금식에 들어간 황전도사의 모습은 더욱 힘이 없어 보였다.

다음 날 아침에 누군가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어! 찾았어! 게임기를 찾았어!" 잃어버린 아이의 가방 속에서 게임기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수련회 일정은 모두 끝났고 게임기 후 유증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한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자 하는 순수한 마음씨가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잔잔한 여운으로 수련회 대미를 장식했다.

/ 김천옥 집사

중등부 여름수련회

'자유' 그리고 '비전'

중등부는 학생과 교사 포함하여 111명이 2박 3일(7월 27일~29일) 일정으로 강원도 대관령 끝자락에 자리잡은 산골아이 놀이학교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산림이 울창한 숲 속, 맑은 공기,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 자유롭게 강당과 교내를 활보하는 귀여운 다람쥐 등 이 모두가 도시생활과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품속에서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유와 씬, 생각, 비전, 가치관,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의도였다.

수련회의 주제는 '자유'였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서 이 세대가 부르짖는 자유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누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해 보고자 정하게 되었다.

먼저 '생각의 자유시간'에는 조별로 한 가지씩 주제를 던져주고 함께 토론히어 전체모임에서 발표토록 하였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그냥 두시는 건가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이 꼭 잘못된가요?'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요?' 등 한 번쯤 떠올려 보았거나 친구들과로부터 질문을 받아본 것들을 자유롭게 토론해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짚어보며 가치관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었다.

'마음의 자유시간'에는 소그룹으로 모여 힘들고 상처 받았을 때와 행복했던 기억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성적 등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상처 받고 힘들어하는 학생이 왜 그리도 많은지 너무나 안타까웠다. 함께 나눔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며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다.

'비전을 위하여' 시간에는 삶의 방향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시간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목표와 초점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도전을 주며 결단케 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수영장과 계곡에서의 물놀이, 떡 메쳐서 인절미 만들어 먹기, 바베큐 및 감자 구워먹기 등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는 추억 만들기 놀이를 하였다.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과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 이것이 그들의 생을 지탱케 하고 변화케 되는 확신을 가지며 아무쪼록 중등부 시절에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 지호선 교사

교회용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준비찬송' 대신 '찬송' 혹은 '찬양'으로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곡조가 있는 시이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곡을 붙인 성도들의 경배의 표현이고, 기도이며, 때로는 성도들의 신앙고백과 결단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의 응답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열심히 찬송 부르는 것을 성도의 바른 자세로 알고 찬

송을 열심히 부른다.

그러나 이렇게 찬송의 생활이 습관화 되다보니 때때로 찬송의 목적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준비찬송'이라는 말에서 찾아보게 된다. 교회에서 '다 같이 준비찬송을 부르면서 앉자리부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간혹 듣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할 찬송을 시간을 메우기 위한 수단인 자리 정돈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듯한 이런 말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찬송'이라는 용어는 마땅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용어연구회 제공자료)

청년부 말씀사경회

본질을 향한 걸음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에 저녁 7시 초등부실에서 김원재 목사의 말씀으로 청년부 말씀사경회가 열렸다. 이번 사경회의 주제는 '본질을 향한 걸음'이었고, 주제성경구절은 시편 119편 105절이었다. 신명기를 중심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의 요지를 간략히 실어본다.

▶ 첫째날

'20대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대를 보내는 청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을 거듭해야 하는데 이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철저한 준비'를 의미함을 기억해야 한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진지하게 고민하며 순종해 나가야 한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누구라도, 단 한사람이라도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분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그가 속한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 둘째날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경 바디매오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Majority가 아니라 Minority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이어졌다.

우리는 'Minority'로서 감추어진 위업을 갖추어야 한다. 3%의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이 참치 못하는 자리를 참으며 견디어야 한다. Minority는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삶의 고통이 있으나 분명히 그 끝이 있다. 본문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바디매오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것은 눈을 뜬 사람들도 몰랐던 예수님의 메시아되심을 눈감은 바디매오가 알아본 것이다. 바디매오는 자신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 때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역시 바디매오와 같이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치유와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

▶ 셋째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본문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목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세상이 비본질을 향해 달려갈 때도 우리들은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한다. 본문의 말씀을 볼때 진정한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목을 품은 자이며, 원수를 대할 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 이웃의 범주는 없다. 하나님이 희망을 품으시는 자는 다 우리의 이웃이고 희망을 품은 안목을 가짐으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민을 향한 선민'으로 세워주셨고 이미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청년들이 비본질의 요소보다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김원재 목사는 말씀을 마무리하였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

/ 최수현 자매

청년부 농촌봉사활동

좌운리에서 맛본 기쁨

청년 1,2부 농활이 성경학교팀, 안마팀, 마을봉사팀, 취사팀으로 나뉘어 저저 활발히 모여 자발적으로 준비되어 왔다. 여기다 미용과 한방은 하루 봉사를 하게 된다. 2주일간 늦은 밤 시간까지 준비를 위해 강당은 여기저기 어둠을 뚫고 불빛을 환히 비추며 연습시간을 가졌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빼먹을 수 없다.

8월 10일 4부예배 후 많은 짐들을 먼저 싣고 버스 한 대에 40여명의 청년들이 올랐다. 버스는 강원도 홍천 좌운리를 향해 막힘이 없이 시원스레 달렸다. 모두들 어떤 농활이 펼쳐질지 긴장되고 설레어 차분한 모습들이었다. 비가 간간히 내리는 좌운리에 내리자 좌운리교회의 목사님과 선발팀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먼저 청년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마을잔치 초대장을 집집마다 찾아가 전달했다.

주일 저녁예배 시간이 되어 20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셨다. 청년들은 같이 앉아 찬송가를 불렀고 청년부 중창팀이 '창문'을 열창하였다. 예배를 마치자 청년들은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배웅해 드리고 이후 공동체 훈련을 가지며 예배당이 친숙해지고 긴장감도 풀려 즐겁게 떠나 없이 웃고 마음을 여는 가운데 이렇게 첫 날 밤이 저물어 갔다.

본격적인 농활 첫 날, 박의일 전도사의 아침 큐티시간은 가벼운 아침식사가 아닌 든든한 하루 양식 같았다. 유상렬 전도사를 비롯한 취사팀의 음식솜씨는 모두들 감탄할 만큼 맛있어 봉사할 힘을 공급해 주고 남을 정도였다.

마을 봉사팀 20여명은 발로 나갔다.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 분리하여 상자에 넣기, 비닐하우스 치기, 논매기, 밭매기 등 3일 농부로서 부지런히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다. 발마사지팀은 전문가에게 6시간동안 교육을 받으며 연마했던 실력을 너무 열심히 발휘한 나머지 이마에서 구슬땀이 비오듯 했다 한다. 여름성경학교팀은 봉고차로 멀직 멀직 떨어진 집들을 찾아가 아이들을 교회로 태워 와 예배당에서 교사들이 찬양과 재미난 율동을 가르쳐주었고,

하는 시간에 최상용 집사와 홍 목사는 의약품 통관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고, 우리는 예정된 반찰릉 초등학교로 가서 강당에 진료소를 차렸다. 강당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교실 두 개 정도로 작았다. 입구 접수대를 지나 소아과와 내과가 나란히 자리잡고, 치과와 한방과가 마주하였으며, 그 끝에 약국을 꾸몄다. 책상을 이용해 진료대와 조제대를 만들었고 캄보디아에서처럼 이발소 의자로 치과를 차렸다.

〈다음 호에 계속〉

취사팀은 그동안 점심, 저녁, 간식 준비까지 하느라 마당 한쪽에 있는 부엌을 거의 떠나질 않았다. 저녁에는 마을 분들을 모시고 예배당에서 영화 '슈렉'을 상영했다. 감감한 예배당에서 옥수수과 자두를 먹으며 영화에 집중하는 모습, 함께 웃는 순간도 진지했다.

화요일은 특별히 주님의교회 장수재 집사가 찾아와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침을 놓고 뜸을 떠주었다. 성경학교팀은 종이로 인형 만들기를 하였고, 오후에는 긴 추석놀이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부흥회가 있었다. 율동팀 교사들과 함께 춤추고 모두들 한껏 뛰며 찬양하였고, 숙연해진 기도시간에는 팀별로 모여 앉아 한 사람씩 손을 내밀어 중보하였다. 마음이 하나되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박의일 전도사의 열정적인 찬양과 하나된 청년들은 기쁨이 충만했다. 후발팀으로 온 10여명의 청년들이 늦은 밤에 도착하여 부흥회의 기쁨으로 함께 환호하였다.

모든 일정의 마지막 수요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박의일 전도사의 큐티로 영의 양식을 먹은 뒤 각자의 봉사영역으로 나아갔다. 미용을 담당하는 윤숙, 콕에스터 집사가 청년들의 보조를 받아 20명의 머리를 수고로이 파마해주었다. 오후에는 개울가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 물을 튀기며 즐겁게 물놀이를 했다.

8시 발표회는 성경학교 학년별로 이루어졌는데 연극, 찬양, 풍토, 스킷드라마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반 아이들이 잘 해내는 모습에 뿌듯함을 감추질 못하였다. 청년들의 위성과 아카펠라 찬양도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캠프파이어 시간이 되자 좌운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밤늦도록 모여 농활을 끝낸 서운함과 기쁨을 나누었다.

목요일 아침 좌운리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특별히 성경학교 아이들과 교사 청년들은 정이 많이 들어 헤어짐을 무척 아쉬워하며 메일주소, 전화번호를 나누며 추후 연락할 것을 약속했다.

구름이 좌운리 산허리를 두른 야경, 한산한 1차선도로에서의 자전거 활주, 교회 종탑에서 들려오는 순박한 종소리, 교회마당에서의 바베큐 파티, 정기적인 맛있는 식사, 맘껏 춤을 추며 찬양하는 시간은 서울 청년들에게 회복을 주기에 충분했다.

태국 푸켓 의료선교를 다녀와서①

의약품 통관과 진료의 시련을 겪어가며



7월 29일, 2교구 수련회가 열리는 광림 세미나하우스에 아침이 밝아왔다. 아침산책 시간이지만 그 싱그러운 숲속 길을 다 걸어보지 못하고 목사와 교우들과 작별한 후 서둘러 서울로 향하였다. 그리고 바로 매연과 소음이 가득한 서울의 어느 시장 속을 헤매고 있었다. 내일 떠나는 의료선교단의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7월 30일, 의료선교부 최상용 부장 집사와 함께 교회에 도착하니 아침 6시였다. 벌써 정현희 목사, 송국환 집

사 그리고 박태웅 집사가 나와서 차에 짐 싣는 것을 도와주었다. 작년 캄보디아 의료선교단의 3분의 1 규모로 사람도 짐도 단출하였다. 의사 3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약사 3명 그리고 보조와 관리 3명으로 모두 13명이었다. 정 목사는 인천공항까지 동행하여 '아픈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었다.

인천에서 태국 방콕까지 5시간, 그리고 국내선으로 갈아탄 후 다시 1시간 15분, 푸켓에 도착하니 현지 시간 5시 20분이었다. 그런데 우리 의약품을 통관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태국 정부가 현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 약품 통관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최상용 집사가 세관원에게 약품 리스트를 보여주고 일부 약품을 꺼내어 설명하여도 막무가내로 듣지 않았고, 그곳의 홍경환 목사님과 한인회 회장까지 와서 설명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이렇게 무려 2시간, 결국 우리는 치과 기구를 비롯한 몇 개의 가방만을 가지고 공항을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날 바로 진료가 시작되어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 기사제보안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글함글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핸드폰 : 011-466-4736

▶ 이메일 : chhylee@korea.com